

# 국어 방언에 반영된 어두경음화

오종갑\*

|| 차례 ||

- I. 서론
- II. 경음화의 실제
- III. 경음화의 전개 양상
- IV. 결론

##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중세 혹은 근대국어에서 어두 복자음을 가졌던 어사 57개와 어두 단자음(평음)을 가졌던 어사 69개의 현대국어 방언형을 『한국방언자료집』에서 찾아 이들의 경음화 여부와 거기에 적용된 규칙(변화)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어두 복자음의 경음화율이 어두 단자음의 경음화율보다 높음이 밝혀졌는데, 이러한 사실은 국어 음운사에서 경음이 음운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 전자의 경음화에 의한 것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해 준다.

어두 경음화와 관련된 규칙(변화)에는 복자음 경음화규칙, ‘ㅂ’탈락규칙, 폐쇄음 경음화규칙, 마찰음 경음화규칙 등이 있는데 이들의 개신지는 다음과 같다.

어두 복자음의 경음화는 전국적으로 그 적용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개신지가 어디인지를 추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ㅂ’탈락규칙의 개신지는 경북의 동남부 지역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지역에서 발생된 개신파는 한편으로는 경북의 서북부 지역으로 전파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남의 서부 지역으로 전파되어 간 것으로 추정된다.

폐쇄음 경음화규칙의 개신지는 경북의 동남부 지역과 경남의 동북부 지역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개신파는 경남북 내부에서의 확산과 동시에 인접 도로 전파되어 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찰음 경음화규칙의 개신지는 경남의 서남부 지역이었을 것으로 추정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되는데, 그 개신파의 주류는 전라도를 거쳐 충청도 지역으로 전파되고 그 아류는 경남의 동북부와 경북 지역으로 전파되어 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북 경산 지역에서 ‘ㅍ’가 음소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어두 복자음(‘ㅍ’)이나 어두 단자음(‘ㅍ’)의 어느 것도 이 지역에서 경음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제어 : 어두 복자음 경음화, 어두 단자음(평음) 경음화, ‘ㅍ’탈락규칙(‘ㅍ>ㅍ’), 폐쇄음 경음화, 마찰음 경음화, 경음화규칙의 개신지.

## I. 서론

중세 혹은 근대국어의 어두에서는 평음으로 실현되던 ‘ㄱ’, ‘ㄷ’, ‘ㅂ’, ‘ㅅ’, ‘ㅈ’가 현대국어의 제 방언에서는 그 반영음이 각각 ‘ㄱ, ㄲ’, ‘ㄷ, ㄸ’, ‘ㅂ, ㅃ’, ‘ㅅ, ㅆ’, ‘ㅈ, ㅉ’ 등으로 실현되어 그동안에 경음화가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지역에 따라서 경음화의 진척 여부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도 알 수 있다. 특히 ‘ㅅ’의 경음화와 관련해서는 경음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에 따라 경음화의 정도에 차이가 있고, 특히 영남방언에서는 파열음(‘ㄱ, ㄷ, ㅂ, ㅅ’)이나 마찰음(‘ㅅ’)이나에 따라 경음화에 차이를 보인 점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에서도 관심을 기울였는데, 그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최학근(1982:323-346)에서는 어두에 사용된 ‘ㄱ, ㄷ, ㅂ, ㅅ’는 영남방언에서 매우 활발하게 경음화가 이루어지므로 이것을 영남방언의 특징으로 지적하였다. 그러나 ‘ㅅ’의 경우는 전자의 경우와는 달리 영남의 서부지역에서는 경음화되나 동부지역에서는 경음화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어느 방언의 특징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ㅅ’의 경음화가 어느 방언의 특징인지 밝혀지지 않은 것은 표준어와 영남방언만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국어 방언 전체 속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위상을 규정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김덕호(1993)에서는 어두 ‘ㅅ’의 비경음화 지역에 대해서 고찰하였는데, 거기서는 어두 ‘ㅅ’ 경음화의 개신지를 서남 방언권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경북의 청도, 월성, 경산, 영천, 영일 등지는 ‘ㅅ’ 비경음 실현 지역으로 보았는데, 이들 지역에서 경음이 실현되지 않는 것은 신라어가 기층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ㅅ’ 비경음화를 신라어의 기층에 의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열음의 경우를 함께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어진 결론으로 이해된다.

다시 말하면, 신라어가 기층으로 작용하여 ‘ㅅ’의 경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ㄱ, ㄷ, ㅂ, ㅈ’의 경음화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야 할 텐데 사실은 이들 지역에서 후자의 경음화는, 전국적으로 보아, 가장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동일한 경음화에서, 신라어가 전자에서는 경음화의 기층어로, 후자에서는 비경음화의 기층어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이러한 차이가 무엇 때문인지 밝혀져야 할 것이다.

백두현(1992:292-299)에서는 영남의 일부 지역에서 ‘ㅅ’의 경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을 두 경우로 가정하여 설명하였다. 첫째는 ‘ㅅ’와 ‘ㄷ’가 대립관계를 이루고 있던 시기에는 ‘ㅅ’가 경음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경음화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둘째는 ‘ㅃ’가 ‘ㅍ’로 경음화되는 지역에서는 ‘ㅍ’가 나타나지만 ‘ㅃ’가 탈락되는 지역에서는 ‘ㅅ’만 나타난다고 보았다.

그런데 중세 중앙어에서는 ‘ㅅ’와 ‘ㄷ’가 대립관계를 이루고 있을 때 이미 ‘ㅍ’가 나타나므로 이들의 대립관계가 경음화의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은 아닌 듯하다. 둘째의 해석은 ‘ㅃ’탈락의 여부가 ‘ㅅ’의 경음화 여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타당한 관찰로 판단된다. ‘ㅃ’에서 ‘ㅃ’가 후행음을 경음화시킨 다음 탈락되면 ‘ㅍ’가 되고 그냥 탈락되면 ‘ㅅ’만 남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렇지만, 이 ‘ㅃ’탈락이 원래부터 어두에 ‘ㅅ’

만을 가진 어사의 경음화, 이를테면, ‘숫다>셋다’와 같은 경음화를 막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은 제공하지 못한다.

최학근(1982:323-346)에서 ‘ㅅ>ㅆ’의 개신지가 논의되지 않은 것이나 김덕호(1993)에서 ‘ㅅ’ 비경음화를 신라어의 기층에 의한 것으로 해석한 것 등은 국어 방언권 전체 속에서 파열음이나 마찰음의 경음화가 다루어지지 않고 주로 중앙어(표준어)와만 비교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방언 상호간에는 그것의 변화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또 그 변화의 개신지는 어디인지, 개신파는 어디에서 어디로 전파되어 가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실정이다. 다시 말하면, 어두경음화와 관련된 비교, 대조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방언 상호간의 수수 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방언 상호간의 비교, 대조에 의한 연구, 특히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비교, 대조가 부진한 것은 방언 자료의 수집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다행히도 『한국방언자료집』이 간행됨에 따라 각 지역 방언의 어휘, 음운, 형태 등의 연구는 물론이고, 이들의 비교를 통해 각 방언의 특징을 밝히는 일이 가능해졌으며, 전국적인 언어지도의 작성을 통해 방언 상호간의 수수 관계를 밝히는 일도 가능해졌다.

본 연구에서는 ①『한국방언자료집』에 나타난 자료들을 활용하여 어두경음화의 실상을 분석하고, ②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어두경음화의 빈도를 군 단위로 통계 처리하며, ③통계 처리 과정에서 밝혀진 변화 빈도를 바탕으로 전국언어지도를 작성하고자 한다. ④그런 다음 각 군 단위의 변화 빈도를 비교하고, 언어지도 해석함으로써 파열음의 어두경음화와 마찰음의 그것을 구분하여 각각의 개신지와 개신파의 전파 과정을 추정해 보고자 한다.

## II. 경음화의 실제

고대국어의 자음체계에는 평음과 유기음 계열은 존재했으나 경음계열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박병채 1971:307-317, 이기문 1972:89-91). 그러나 중세국어의 자음체계에는 평음과 유기음 계열은 물론이고 경음 계열도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기문 1972:47-55, 허용 1982:378). 그렇다면 고대국어와 중세국어 사이의 어느 시기에 경음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발생 원인에 대한 견해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김형규(1978:65-78)에서는 합용병서를 국어 경음의 원류로 보고 있다. 즉, ‘ㅂ’계 합용병서의 ‘ㅂ’는 원래 제 음가를 가지고 있었으나 후대에 와서 후행음을 경음화시킴으로써 경음이 발달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ㅅ’계 합용병서의 경음화는 다시 세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첫째는 기원적으로는 ‘ㅂ’계였으나 경음화되어 ‘ㅅ’계로 표기된 경우, 둘째는 기원적으로는 ‘ㅅ’ 두음을 가진 음절이었으나 모음의 탈락으로 ‘ㅅ’계 병서가 되고 이것이 다시 경음으로 바뀐 경우, 셋째는 어두 평음의 강음화(경음화) 현상에 의해 ‘ㅅ’계 병서로 표기된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이 견해는 경음의 발달이 자생적이냐의 여부에 따라 두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평음의 강음화(경음화)는 자생적 변화이고 여타의 경우는 비자생적(결합적) 변화이다.

이기문(1972:53-55)에서는 어두 경음화의 원인을 ①표현의 강화, ②사이시옷과 결합된 발음의 일반화, ③후행 음절의 경음에 의한 역행동화 등으로 보고 있다. 이 견해에서 ①은 자생적 변화를, ②와 ③은 비자생적 변화를 나타낸다.

앞에서 본 김형규(1978:65-78)에서나 이기문(1972:53-55)에서나 다 같이 자생적 변화와 비자생적 변화를 어두경음화의 원인으로 언급하고<sup>1)</sup> 있

1) 위진(2008:115-116)에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언급되었던 심리작용, 음운환경 이외에

지만 양자 중 어느 쪽이 먼저 경음화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달리 언급이 없다. 그런데 이 문제는 국어음운사에서 경음이 음운으로 자리 잡게 된 원인을 밝혀 주는 일이 됨과 동시에 현대국어에서 ‘ㅍ’를 음운으로 가지지 않은 방언이 존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관건이 된다.

고대국어와 중세국어 사이의 어느 시기에 경음이 발생했다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라나 고려 시대의 언어 자료를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자를 빌어 표기된 신라어나 고려어의 자료를 통해 경음화의 여부를 판단하는 일은 자료상의 제약 때문에 자의적 해석에 빠질 우려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15세기 이후의 변화를 통해 그 이전의 변화 경향을 추정해 보기로 하는데 그것은 언어 변화의 연속성을 믿기 때문이다.

다음에서는 근대 이전의 국어에서 어두복자음을 가졌던 어사와 단자음 ‘ㄱ, ㄷ, ㅂ, ㅅ, ㅈ’를 가졌던 어사가 현대국어에서 각각 경음화된 정도를 비교함으로써 경음화의 선후 관계를 밝혀 보기로 한다.

근대 이전의 국어에서 어두복자음을 가졌던 어사들로서 『한국방언자료집』에 그 현대 방언형이 조사되어 있는 어사로는 ‘ㄱ’계 어사가 7개(‘깨(<깨-, 사해 상10), 깨-<깨-, 破, 능 2:48), 꾸-<꾸-, 借, 삼강 효9), ㄷ-<뉘-, 석 6:33), 끼-<끼-, 挾, 두초 10:26), 끼-<끼-, 석 13:10), 꿔-<꿔-, 월곡 14’), ‘ㅂ’계 어사가 22개(‘따로따로(<쁘로, 석 6:7), 따르-<쁘로-, 박중 하24), 따-<뉘-, 摘, 월곡 99), 딸기(<딸기, 자회 상12), 때(<뉘, 垢, 석 6:27), 뉘-<뉘-, 두초 18:16), 뉘(<뉘, 群, 노 하22), 뉘-<뉘-, 소연 5:101), 뛰-<뛰-, 躍, 금삼 2:12), 뜨-<뜨-, 浮, 능 1:47), 뜯기-<뜯-, 摘, 두초 20:51), 뜯(<뉘, 두초 8:17), 띄우-<띄오-, 월석 8:99), 싸-<싸-, 尿, 구간 1:43), 쌀밥(<쌀밥, 두초 22:20), 썰기(<쓰야기, 물보), 쭈

---

의미분화가 경음화의 원인으로 추가되어 있다.

시-(<뿌시-, 계축 9), 씨우-(<씨우-, 법화 4:35), 짜-(<찌-, 蒸, 능 6:89), 짜-(<찌-, 법화 7:119), 짹짹이(<짹짹이, 몽류 하17), 쫓-(<쫓-, 월석 10:24)), ‘ㅅ’계 어사가 28개(‘깨끗이(<깨끗지, 마언 하19), 꼬-(<꼬-, 월석 13:62), 파리(<파리, 구방 상63), 꾸-(<꾸-, 夢, 월곡 67), 꿈(<꿈, 용 13), 꿩(<꿩, 용 88), 꿩매-(<꿩매-, 여사 3:6), 꾸-(<꾸-, 청구 113), 꿩-(<꿩-, 삼악 1:16), 끼-(<끼-(이끼), 월석 2:75), 끼-(<끼-(반지), 능 4:62), 까닭(<까닭, 한중 566), 깔-(<갈-, 월곡 66), 깨-(<찌-, 覺, 석 9:31), 때리-(<차리-, 경신 6), 떡(<떡, 월석 1:42), 또아리(<또아리, 유물 5), 똥(<똥, 법화 1:4), 뜨-(<뜨-, 搯, 두초 15:24), 땀띠(<땀되야기, 자회 중33), 땅거미(<땅, 해례 합자), 뺨(<뺨, 유합 상21), 뺨(<뺨, 자회 상28), 뺨-(<뺨-, 박 초 상44), 뽕나무(<뽕나무, 자회 상10), 뽕죽하-(<뽕죽하-, 청구 120), 뽕-(<뽕-, 濯, 월석 2:51), 빨리(<빨리, 석 6:40)’ 발견된다.

그런데 ‘ㅅ’계의 ‘ㅅ’를 제외한 복자음은 전국 138개 군에서 모두 100%의 경음화율을 보이고, ‘ㅅ’는 88%의 경음화율을 보인다.<sup>2)</sup> ‘ㅅ’가 다른 복자음과는 달리 88%의 경음화율을 보이는 것은 경상도의 일부 지역에서 ‘ㅅ’탈락규칙이 적용되어 ‘ㅅ’만 남았기 때문이다. 100%의 경음화율을 보이는 경우는 제외하고 ‘ㅅ’의 경우만 어사별 경음화율을 보면 [표 1]과 같다.

2) “15세기 국어 표기에 사용된 합용병서자(‘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의 음가에 대해서는 모두 철자대로 발음되었다고 보는 견해(최현배 1940, 허웅 1982, 박창원 1991), 모두 경음으로 발음되었다고 보는 견해(김민수 1955, 박병채 1989, 이동림 1964, 도수희 1971, 우민섭 1988), 그리고 ‘ㅅ’계는 자음군으로, ‘ㅅ’계는 경음으로, ‘ㅅ’계는 ‘ㅅ’와 경음의 결합으로 보는 견해(이기문 1972, 이승녕 1982, 이남덕 1968, 오정란 1988) 등”이 있으나 동일 부류 내에서도 세부적으로는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오종갑 1996 참조). 여기서는 ‘모두 철자대로 발음되었다’는 견해를 따르기로 한다.

그리고 복자음의 경음화 과정은 ‘ㅅ’계가 17세기에 들어와서 그 일부가 ‘ㅅ’계와, 다른 일부가 ‘ㅅ’계와 합류되었으며, ‘ㅅ’계는 16세기에, ‘ㅅ’계는 17세기 말에 각각 경음으로 바뀌어 경음화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허웅 1982:460 참조).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ㅅ’계, ‘ㅅ’계, ‘ㅅ’계의 경음화를 구분하지 않고 ‘복자음 경음화’로 부르기로 한다.

〔표 1〕 어사별로 본 경음화 빈도(% , 'ㅂ')

자음	어사	군의 수	비율
ㅂ	싸-(<ㅂ-, 尿)	125/138	91
	쌀밥(<발밥)	126/138	91
	쌌기(<보야기)	88/105	84
	쭈시-(<뿌시-)	100/109	92
	썩우-(<뽕우-)	102/126	81
	평균	108/123	88

『한국방언자료집』에는 어두 단자음의 경음화와 관련된 69개의 어사가 발견된다.<sup>3)</sup> 다음에서는 이들을 자음의 종류별(‘ㄱ’계 34개, ‘ㄷ’계 10개, ‘ㅂ’

3)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어사가 발견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중세 혹은 근대국어에서 평음을 두음으로 가진, 기원적인 어사가 발견되고 또 전국 138개 군(울릉군 제외) 중 최소한 한 개 이상의 군에서 경음으로 실현되는 어사들을 중심으로 어두경음화를 고찰하였다. 통계 처리된 어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ㄱ’계: 꽃(<꽃, 용 2), 가루(<마루, 법화1:223), 가시(<가식, 동문 상:63), 가위(<가새, 박초 상:39), 가지(茄子, 자회 상:13), 갈퀴(<갈키, 동문 하:16), 감다(<감-洗), 석보 9:22), 개구리(<개고리, 유합 상:15), 개암(<개음, 자회 상:11), 검은자위(<검-, 두초 15:30), 계(월인 10:9), 게으르다(삼강 열11), 고쟁이(<고지양, 구간 1:42), 고들빼기(<고들쌩이, 해동 p.95), 고양이(유물 1), 고욤(자회 상:12), 고지(<고으-(烹), 자회 하:13), 고치(<고티, 해례 용자), 곱하다(<곱-, 월석 1:48), 팽이(<광이, 태평 1:119), 구기다(<구기-, 동문 상:56), 구린내(<구리-, 구간 3:40), 구석(소연 2:10), 굴뚝(<굴썩, 동문 상:35), 굶다(석보 6:32), 굶는다(월석 2:9), 그릇(월곡 4), 그을렀다(역보 56), 그을음(유물 5), 굶지(월석 7:18), 굶다(<그스-(劃), 두초 22:33), 까치(<가치, 용 7), 깎아야(<깎-, 월곡 120), 꽃아(꽃-, 두초 24:8).

‘ㄷ’계: 다듬다(<다듬-, 박초 상:52), 다듬이질(<다듬이, 박중 중:4), 닭지(<닭-, 석보 9:35), 두꺼비(<둘거비, 사해 하:31), 두껍다(<둔겁-, 법화 6:18), 두더지(<두더쥐, 역어 하:33), 두드리다(능엄 7:18), 두지(碁, 동문 하:32), 뚝부기(<뚝부기, 자회 상:17), 쪼고(<당-, 두초 7:18).

‘ㅂ’계: 박쥐(<불쥐, 구간 6:68), 변태기(<본도기, 자회 상:22), 변지(平板, 물보), 병아리(유물), 부뚜막(<붓두막, 역보 14), 불다(<불-, 두초 7:26), 뿌리(<불휘, 용 2).

‘ㅅ’계: 썰레(<서호레, 자회 하:31), 수수(<슈슈, 자회 상:12), 시래기(<시락이, 물보),

계 7개, ‘ㅅ’계 14개, ‘ㅈ’계 4개)로 나누어 각 어사들의 경음화 여부와 그 분포 지역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이들의 각각이 전국 138개 군에서 경음화되어 실현되는 군의 수를 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어사별로 본 경음화 빈도(% , ㄱ, ㄷ, ㅂ, ㅅ, ㅈ)

자음	어사	군의 수	비율	자음	어사	군의 수	비율
ㄱ	꽃	138/138	100	ㄷ	짙고	138/138	100
	가루	1/138	1		다듬이질	57/138	41
	굽다	1/134	1		두껍다	59/138	43
	그릇	1/138	1		다듬다	65/138	47
	고양이	2/138	1		두꺼비	68/135	50
	가위	4/138	3		닭지	95/138	69
	구석	6/138	4		두드리다	109/138	79
	계	12/138	9		뜸부기	119/123	97
	고음	12/122	10		<b>평균</b>	<b>75/136</b>	<b>55</b>
	굴뚝	24/138	17		ㅂ	부뚜막	5/136
	케으르다	24/138	17	번지		4/72	6
	굽지	29/134	22	볶다		45/126	36
	고지(옛)	33/138	24	병아리		57/138	41
	굽하다	36/126	29	번데기		49/113	43
가지	49/138	36	박쥐	69/135		51	
갈퀴	52/137	38	뿌리	138/138		100	
굿다	45/118	38	<b>평균</b>	<b>52/123</b>		<b>40</b>	

씻다(<숫-, 구간 6:86), 삼팽이(<습, 자회 상19), 쇠서(<쇠-, 구방 하48), 삶고(<습-, 월석 23:80), 씻어라(<숫-, 자회 하20), 찍지(<석-, 능 4:80), 샅이(<샅, 박초 상11), 쫄지(<술-, 해례 합자), 삶지(<습-, 능 1:81), 속(<숙, 월석 1:13), 속이다(<소가-, 능 8:77).

‘ㅈ’계: 작다(<작-, 유합 하:47), 저리다(동문 하:7), 주름살(<주름, 자회 중:23), 집다(남명 하:70).

	구린내	54/138	39	人	쇠서	6/138	4		
	고들깨비	45/111	41		속	19/138	14		
	굽는다	59/138	43		속이다	28/138	20		
	고갱이	28/62	45		삼팽이	37/137	27		
	검은자위	59/121	49		수수	59/136	43		
	팽이	72/138	52		삶고	77/138	56		
	개구리	82/136	60		시래기	79/136	58		
	감다	82/136	60		삶이	78/128	61		
	고치	82/133	62		삶지	84/138	61		
	개암	80/130	62		씻어라	88/138	64		
	가시	74/106	70		씻다	95/137	69		
	구기다	118/138	86		씩지	113/138	82		
	그을음	120/136	88		쏟지	113/130	87		
	깎아야	125/138	91		씨레	123/136	90		
	그을렀다	125/134	93		<b>평균</b>	<b>71/136</b>	<b>53</b>		
	까치	135/136	99		ㅈ	저리다	3/131	2	
	꽃아	133/133	100			주름살	5/115	4	
	<b>평균</b>	<b>57/131</b>	<b>44</b>			작다	10/138	7	
	ㄷ	두더지	6/135			4	집다	12/138	9
		두지	31/138			22	<b>평균</b>	<b>8/131</b>	<b>6</b>

위의 [표 2]에 의하면, ‘ㄱ’계 어사 중에는 ‘가루, 굽다, 그릇, 고양이’처럼 1/138 개 군에서만 경음화되는 어사들이 있는가 하면 ‘꽃’처럼 138/138 개 군에서 경음화되는 어사도 있어 어사별로 경음화의 정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음화 빈도의 차이가 무엇에 연유하는지는 알 수가 없다. ‘ㄱ’계 어사의 경음화율은 평균 44%에 이른다. ‘ㄷ’계 어사는 6/135 개 군에서 138/138 개 군에 이르기까지 경음화가 이루어졌는데 경음화율은 평균 55%에 이른다.

‘ㅈ’계 어사는 5/136 개 군에서 138/138 개 군에 이르기까지 경음화가

이루어졌는데 경음화율은 평균 40%에 이르고, ‘ㅅ’계 어사는 6/138 개 군에서 123/136 군에 이르기까지 경음화가 이루어졌는데 경음화율은 평균 53%에 이른다. 그리고 ‘ㅈ’계 어사는 3/131 개 군에서 12/138 개 군에 이르기까지 경음화가 이루어졌는데 경음화율은 평균 6%에 이른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ㅈ’의 경우가 ‘ㄱ, ㄷ, ㅂ, ㅅ’의 경우보다 경음화율이 현저히 낮은 점인데,<sup>4)</sup> 이것은 국어음운사에서 전자의 경음이 후자의 경음보다 늦게 발달했음을 의미한다.<sup>5)</sup>

앞에서 본 어두 복자음의 경음화율(‘ㅁ’을 제외한 복자음 100%, ‘ㅁ’ 88%)과 여기서 본 어두 단자음의 경음화율(‘ㄱ’(44%), ㄷ(55%), ㅂ(40%), ㅅ(53%), ㅈ(6%)’의 차이는 단자음보다는 복자음의 경음화가 먼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말해 준다. 즉 국어 음운사에서 경음이 음운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단자음의 경음화(자생적 변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복자음의 경음화(결합적 변화)에 의한 것이었을 가능성을 말해 준다.

### Ⅲ. 경음화의 전개 양상

국어음운사에서 경음이 음운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어두복자음이 경음화되었기 때문일 것이라 가능성을 앞에서 제기했다. 그리고 그에 이어 자생적 변화에 의해 어두의 단자음(평음)이 경음화됨으로써 경음을 지닌 어사는 크게 불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에서는 이 두 경우의 경음화가 전국의 138개 군(울릉군 제외)에서 어느 정도로 진척되었는지를 살펴보기로

4) 위진(2008:131)에서는 “조음위치가 성대와 가까운 자음일수록” 어두경음화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ㄱ>ㅈ>ㅅ>ㅁ>ㄷ>ㅂ’) 여기와는 차이가 있다.

5) 이기문(1972:52-53)에서는 15세기 국어에 ‘ㄱ, ㄷ, ㅂ, ㅅ, ㅎ’의 경음은 있었으나 ‘ㅈ’의 경음은 근대어에 와서 발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다.

그런데 ‘ㅁ’를 제외한 여타의 복자음은 전국의 모든 군에서 경음화가 완성되었으므로<sup>6)</sup> 이 경우에 해당되는 어사들의 경음화 빈도를 군 단위로 제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ㅁ’경음화규칙(‘ㅁ>ㅁ’)과 상충하는 관계에 있던 ‘ㅂ’탈락규칙(‘ㅁ>ㅂ’)의 경우만 살펴보기로 하는데, 그것의 적용 빈도는 [표 3]과 같고,<sup>7)</sup> 그 빈도를 지도에 표시하면 [지도 1]과 같다.

[표 3] 지역별로 본 ‘ㅂ’탈락(‘ㅁ>ㅂ’) 빈도(%)

군명	어사 수	비율	군명	어사 수	비율	군명	어사 수	비율
213영월	1/5	20	701영풍	1/3	33	714군위	3/4	75
308보은	1/5	20	702봉화	1/3	33	715영일	3/3	100
413논산	1/5	20	703울진	2/3	67	716성주	2/4	50
601영광	1/5	20	704문경	3/5	60	717칠곡	1/3	33
602장성	1/5	20	705예천	2/4	50	718경산	3/3	100
603담양	1/5	20	706안동	2/4	50	719영천	5/5	100
606함평	1/5	20	707영양	1/3	33	720고령	5/5	100
607광산	1/5	20	708상주	1/3	33	721달성	4/4	100
609무안	1/5	20	709의성	1/3	33	722청도	3/4	75
610나주	1/5	20	710청송	4/4	100	723월성	4/4	100
613광양	1/5	20	711영덕	3/3	100	804밀양	2/4	50
614영암	1/5	20	712금릉	1/3	33	814양산	2/2	100
615진도	2/5	40	713선산	2/3	67			

[표 3]에 의하면 ‘ㅂ’탈락규칙(‘ㅁ>ㅂ’)이 가장 많이 적용된 지역은 청송,

6) 이 때문에 어두 복자음의 경음화가 어느 지역에서 먼저 발생하였는지 현대 방언 자료만으로 그 개신지를 추정하기는 불가능하다.

7) 적용 빈도가 0인 지역은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제시하지 않았다.

영덕, 영일, 경산, 영천, 고령, 달성, 월성, 양산 등지로서 그 적용률이 100%임을 알 수 있는데, 경남의 양산을 제외하면 전부 경북의 동남부 지역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이들 지역을 ‘ㅂ’탈락규칙의 개신지로 추정하여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들 지역에서 발생한 개신파는 한편으로는 경북의 서북부 지역으로 전파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약하나마 해로를 통해 전남의 서부 지역으로 전파되어 간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에서는 단자음(평음)의 경음화가 전국의 138개 군(울릉군 제외)에서 어느 정도로 진척되었는지를 폐쇄음(‘ㄱ, ㄷ, ㅂ, ㅈ’)의 경우와 마찰음(‘ㅅ’)의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폐쇄음(‘ㄱ, ㄷ, ㅂ, ㅈ’)을 두음으로 가진 55개의 어사가 전국 138개 군(울릉군 제외)에서 경음으로 실현된 빈도를 보면 [표 4]와 같고, 그것을 지도에 표시하면 [지도 2]와 같다.

[표 4] 지역별로 본 경음화 빈도(% , 폐쇄음 종합)

군명	어사 수	비율	군명	어사 수	비율	군명	어사 수	비율
101연천	12/54	22	403아산	14/55	25	621여천	29/51	57
102과주	9/55	16	404천원	13/55	24	622완도	19/48	40
103포천	11/55	20	405예산	14/55	25	701영풍	34/52	65
104강화	9/53	17	406홍성	11/55	20	702봉화	31/52	60
105김포	11/55	20	407청양	16/54	30	703울진	35/52	67
106고양	9/53	17	408공주	14/55	25	704문경	32/52	62
107양주	9/55	16	409연기	15/55	27	705예천	37/54	69
108남양	9/55	16	410보령	10/53	19	706안동	31/51	61
109가평	12/55	22	411부여	15/54	28	707영양	33/51	65
110용진	11/52	21	412서천	11/54	20	708상주	33/52	63
111시흥	11/55	20	413논산	12/54	22	709의성	34/53	64
112광주	12/55	22	414대덕	18/55	33	710청송	36/52	69
113양평	11/55	20	415금산	16/53	30	711영덕	31/52	60
114화성	10/55	18	501옥구	13/54	24	712금릉	30/49	61

115용인	14/55	25	502익산	14/53	26	713전산	35/51	69
116이천	16/55	29	503완주	12/53	23	714군위	33/53	62
117여주	14/55	25	504진안	22/54	41	715영일	36/51	71
118평택	10/55	18	505무주	26/54	48	716성주	32/51	63
119안성	16/55	29	506김제	21/53	40	717칠곡	34/52	65
201철원	9/52	17	507부안	20/53	38	718경산	38/52	73
202화천	10/50	20	508정읍	21/52	40	719영천	39/54	72
203양구	11/51	22	509임실	24/53	45	720고령	34/51	67
204인제	14/52	27	510장수	26/53	49	721달성	38/52	73
205고성	16/51	31	511고창	24/52	46	722청도	39/54	72
206춘성	12/54	22	512순창	22/52	42	723월성	44/55	80
207홍천	13/53	25	513남원	25/53	47	801거창	34/51	67
208양양	11/52	21	601영광	22/47	47	802합천	36/49	73
209횡성	12/53	23	602장성	20/50	40	803창녕	36/50	72
210평창	23/49	47	603담양	23/53	43	804밀양	38/51	75
211명주	22/51	43	604곡성	24/52	46	805울주	36/50	72
212원성	17/51	33	605구례	29/51	57	806함양	33/51	65
213영월	25/52	48	606함평	24/51	47	807산청	27/49	55
214정선	27/52	52	607광산	20/47	43	808의령	32/51	63
215삼척	24/49	49	608신안	21/47	45	809하동	25/50	50
301진천	15/55	27	609무안	21/50	42	810진양	32/49	65
302음성	16/55	29	610나주	26/51	51	811함안	30/51	59
303중원	16/55	29	611화순	19/50	38	812의창	35/50	70
304계원	16/55	29	612승주	31/51	61	813김해	32/50	64
305단양	25/54	46	613광양	31/52	60	814양산	38/50	76
306청원	15/55	27	614영암	23/48	48	815사천	31/50	62
307괴산	20/55	36	615진도	18/48	38	816고성	33/51	65
308보은	23/55	42	616해남	21/52	40	817남해	29/50	58
309옥천	23/55	42	617강진	22/50	44	818통영	29/49	59
310영동	28/55	51	618장흥	23/50	46	819거제	29/49	59
401서산	11/54	20	619보성	22/50	44	901북제	12/42	29
402당진	13/54	24	620고흥	26/48	54	902남제	14/42	33

[표 4]에 의거하여 각 지역별 어두경음화(‘ㄱ, ㄷ, ㅂ, ㅈ’)의 경향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sup>8)</sup>

경기도에서 어두경음화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이천(29%), 안성(29%), 여주(25%), 용인(25%)이고, 여타 지역은 20%로부터 16%에 까지 걸쳐 있다. 그런데 앞의 네 지역은 경기도의 남동부 지역으로서 용인을 제외하고는 충청남북도의 음성, 진천, 천원과 각각 접경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경음화의 개신파는 이들 지역으로부터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 19개 군 전체의 평균 경음화율은 21%로서 전국 9개 도 중에서 가장 낮다.

강원도에서 경음화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50%대의 정선, 40%대의 삼척, 영월, 평창, 명주 등지인데, 이들 지역은 경북 북부 지역으로부터 개신파가 전파되어 온 것으로 판단된다. 강원도의 여타 지역은 북부 지역으로 가면서 30%대, 20%대, 10%대로 경음화율이 줄어드는데 이것은 방언 전파의 전형적 모습을 보인 것이다. 강원도 15개 군 전체의 평균 경음화율은 32%로서, 전국적으로 볼 때, 낮은 편에 속한다.

충북에서 경음화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50%대의 영동, 40%대의 단양, 보은, 옥천 등지인데, 이들 지역은 경북 서부 지역으로부터 개신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여타 지역은 30%대와 20%대의 경음화율을 보여 주는데 이들 지역은 앞의 네 지역으로부터 영향을 받음과 동시에 경북 서부 지역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충북 10개 군 전체의 평균 경음화율은 36%로서, 전국적으로 볼 때, 중간 정도에 해당된다.

충남에서 경음화율이 높은 지역은 30%대의 대덕, 금산, 청양이고, 여타 지역은 20%대와 10%대의 경음화율을 보인다. 그런데 서쪽으로 갈수록 그

8) 폐쇄음(‘ㄱ, ㄷ, ㅂ, ㅈ’)의 경음화율을 도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경북(67%)>경남(65%)>전남(47%)>전북(39%)>충북(36%)>강원(32%)>제주(31%)>충남(25%)>경기(21%)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아 개신파가 주로 충청으로부터 전파된 것으로 추측된다. 충남 15개 군 전체의 평균 경음화율은 25%로서, 전국적으로 볼 때, 경기도 다음으로 그 비율이 낮다.

전북에서 경음화율이 높은 지역은 40%대의 장수, 무주, 남원, 고창, 임실, 순창, 진안, 김제, 정읍 등지이고, 여타 지역은 30%대와 20%대의 경음화율을 보인다. 그런데 이들 중 무주, 장수, 남원이 경북 혹은 경남의 서부 지역과 접경하고 고창과 순창은 전남과 접경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전북의 동부 지역으로는 경상도로부터, 전북의 남부 지역으로는 전남으로부터 경음화의 개신파가 전파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북 13개 군 전체의 평균 경음화율은 39%로서, 전국적으로 볼 때, 중간 정도에 해당된다.

전남에서 경음화율이 높은 지역은 60%대의 승주, 광양, 50%대의 구례, 여천, 고흥, 나주 등지인데, 이들 중 구례와 광양이 경남의 하동과 접경하고 있으므로 하동으로부터 개신파가 전파되어 왔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하동의 경우는 경음화율이 50%로서 구례와 광양의 57%, 60%보다 낮으므로 하동으로부터 개신파가 전해 온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여기서는 경남의 남부 해안 도서 지역으로부터 해로를 통해 그 개신파가 이들 지역으로 전파되고, 그것이 다시 전남의 서부 지역으로 전파되어 갔을 것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전남 22개 군 전체의 평균 경음화율은 47%로서, 전국적으로 볼 때, 중간 정도에 해당된다.

경북에서 경음화율이 높은 지역은 80%대의 월성, 70%대의 달성, 경산, 청도, 영천, 영일 등지로서 경북의 동남부 지역에 해당된다. 여타 지역은 모두 60%대의 경음화율을 보인다. 그러므로 경북 지역에서는 동남부 지역으로부터 여타 지역으로 개신파가 전파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북 23개 군(울릉군 제외) 전체의 평균 경음화율은 67%로서 9개 도 가운데 가장 높다.

경남에서 경음화율이 높은 지역은 70%대의 양산, 밀양, 합천, 창녕, 울주, 의창 등지로서 합천을 제외하면 대체로 경남의 동북부 지역에 해당된

다. 여타 지역은 60%대가 7개 군, 50%대가 6개 군인데, 동북부 지역에서 떨어질수록 그 비율이 낮아짐을 볼 수 있다. 70%대 지역인 동북부 지역으로부터 서남부 지역으로 가면서 그 비율이 60%대, 50%대, 40%대로 낮아지는 것은 개신파가 순차적으로 이들 지역에 전파되어 갔음을 말하는 것이다. 경남 19개 군 전체의 평균 경음화율은 65%로서 경북 다음으로 높다.

제주도에서는 평균 31%의 경음화율을 보이는데, 전국적으로 볼 때, 그 비율은 낮은 편에 속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각 지역별 경음화율과 [지도 2]를 종합해 보면, 도별로는 경북이 그 비율이 가장 높고, 군별로는 80%대-70%대의 비율을 보인 경북의 동남부 지역(월성, 달성, 경산, 청도, 영천)과 경남의 동북부 지역(양산, 밀양, 합천, 창녕, 울주)이 그 비율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지도 2]를 다시 보면, 경북의 동남부 지역과 경남의 동북부 지역이 중심이 되어 주변 지역으로 갈수록 그 비율이 낮아짐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분포 경향은 폐쇄음 경음화의 개신지가 바로 이들 지역이었으리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경북의 동남부 지역과 경남의 동북부 지역이 경음화의 개신지일 경우 그 개신파는 경남북 내부에서의 확산과 동시에 인접 도인 강원, 충북, 전북, 전남 등지로 전파되고, 다시 충남, 경기 등지로 전파되어 갔으리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마찰음(‘ㄸ’)을 두음으로 가진 14개의 어사가 전국 138개 군(울릉군 제외)에서 경음으로 실현된 빈도를 보면 [표 5]와 같고, 그것을 지도에 표시하면 [지도 3]과 같다.

〔표 5〕 지역별로 본 경음화 빈도(% , ‘ㅅ’)

군명	어사 수	비율	군명	어사 수	비율	군명	어사 수	비율
101연천	5/14	36	403아산	9/14	64	621여천	10/14	71
102파주	5/14	36	404천원	8/14	57	622완도	7/13	54
103포천	6/14	43	405예산	9/14	64	701영풍	1/14	7
104강화	4/14	29	406홍성	7/14	50	702봉화	5/14	36
105김포	4/12	33	407청양	9/14	64	703울진	3/14	21
106고양	5/14	36	408공주	9/14	64	704문경	2/14	14
107양주	5/14	36	409연기	10/14	71	705예천	3/14	21
108남양	6/14	43	410보령	7/14	50	706안동	8/14	57
109가평	7/14	50	411부여	9/14	64	707영양	2/14	14
110용진	6/14	43	412서천	7/14	50	708상주	3/14	21
111시흥	6/13	46	413논산	9/14	64	709의성	3/14	21
112광주	6/13	46	414대덕	8/13	62	710청송	3/14	21
113양평	7/14	50	415금산	10/14	71	711영덕	3/14	21
114화성	6/13	46	501옥구	7/14	50	712금릉	9/14	64
115용인	6/13	46	502익산	6/14	43	713선산	2/14	14
116이천	5/14	36	503완주	6/14	43	714군위	2/14	14
117여주	5/14	36	504진안	8/14	57	715영일	1/14	7
118평택	6/14	43	505무주	10/14	71	716성주	2/14	14
119안성	7/13	54	506김계	7/14	50	717칠곡	1/14	7
201철원	6/14	43	507부안	7/14	50	718경산	0/14	0
202화천	8/14	57	508정읍	7/14	50	719영천	1/14	7
203양구	5/14	36	509임실	9/14	64	720고령	2/14	14
204인제	9/14	64	510장수	8/14	57	721달성	2/14	14
205고성	8/14	57	511고창	8/14	57	722청도	1/14	7
206춘성	8/14	57	512순창	8/14	57	723월성	1/14	7
207홍천	7/14	50	513남원	9/14	64	801거창	13/14	93
208양양	5/13	38	601영광	8/14	57	802함천	10/14	71
209횡성	7/14	50	602장성	7/13	54	803창녕	11/14	79
210평창	7/14	50	603담양	7/14	50	804밀양	6/14	43
211명주	7/14	50	604곡성	9/14	64	805울주	9/14	64
212원성	9/14	64	605구례	9/13	69	806함양	12/14	86
213영월	10/14	71	606함평	8/14	57	807산청	12/14	86

214정선	10/14	71	607광산	8/14	57	808의령	12/14	86
215삼척	6/13	46	608신안	5/13	38	809하동	13/14	93
301진천	9/14	64	609무안	7/14	50	810진양	13/14	93
302음성	8/13	62	610나주	8/14	57	811함안	13/14	93
303중원	7/14	50	611화순	8/14	57	812의창	11/14	79
304제원	8/13	62	612승주	9/13	69	813김해	13/14	93
305단양	9/13	69	613광양	10/14	71	814양산	8/14	57
306청원	8/14	57	614영암	7/13	54	815사천	13/14	93
307괴산	9/13	69	615진도	5/13	38	816고성	13/14	93
308보은	9/14	64	616해남	7/14	50	817남해	13/14	93
309옥천	9/14	64	617강진	7/14	50	818통영	13/14	93
310영동	10/14	71	618장흥	7/13	54	819거제	13/14	93
401서산	9/14	64	619보성	8/14	57	901북제	8/12	67
402당진	10/14	71	620고흥	8/14	57	902남제	7/12	58

[표 5]에 의거하여 각 지역별 어두경음화(‘ㅅ’)의 경향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sup>9)</sup>

경기도에서 ‘ㅅ’ 경음화의 빈도가 높은 지역은 60%대의 적용률을 보인 안성, 양평, 가평 등지이고, 이외의 지역은 강화(45%) 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50%대의 빈도를 보인다. 그런데 가평, 양평, 안성과 접경한 강원도의 춘성, 원성, 충북의 진천 등지가 모두 70%대의 경음화율을 보이므로 이들 지역으로부터 개신파가 전파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접경 지역에 위치한 다른 군들도 모두 접경한 타도의 군들보다 그 빈도가 낮은 것으로 보아 이 군들로부터 개신파가 전파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 19개 군 전체의 경음화율은 평균 54%로서, 전국적으로 볼 때, 낮은 지역에 속한다.

9) 마찰음(‘ㅅ’)의 경음화율을 도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경남(85%)>충북(75%)>제주(74%)>충남(73%)>전남(70%)>전북(68%)>  
강원(67%)>경기(54%)>경북(28%)

강원도에서 ‘ㅅ’ 경음화의 빈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80%의 적용률을 보인 영월과 정선이고, 인접 지역인 원성, 횡성, 평창, 명주 등지에서 그 적용률이 낮아지는 점으로 보아 영월과 정선을 중심으로 개신파가 전파되어 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지도 3]을 보면 영월과 접경한 단양이 70%대의 적용률을 보이므로 이 지역에서 영월로 개신파가 전파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단양의 실제 적용률은 79%로서 80%인 영월과 1%의 차이가 날 뿐이므로 그 적용률에 유의미적인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강원도 지역에는 충북 지역으로부터 그 개신파가 전파된 것으로 해석하여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강원도 15개 군 전체의 경음화율은 평균 67%로서, 전국적으로 볼 때, 보통 정도의 지역에 속한다.

충북에서 ‘ㅅ’ 경음화의 빈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80%의 적용률을 보인 영동이고, 중원(65%)을 제외한 나머지 8개 군은 모두 70%대의 적용률을 보인다. 그런데 영동과 접경한 군이 전북 무주(80%)인 점을 감안할 때 이 지역으로부터 개신파가 전파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충북의 10개 군 전체의 경음화율은 평균 75%로서 전국의 9개 도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지역에 속한다.

충남에서 ‘ㅅ’ 경음화의 빈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80%의 적용률을 보인 금산, 당진, 연기이므로 이들 지역으로부터 70%대와 60%대의 지역으로 개신파가 전파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지도 3]을 보면 충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북의 무주(80%)로부터 충남의 금산으로 개신파가 전파되고 이 개신파는 다시 북쪽과 서쪽으로 확산되어 갔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충남의 15개 군 전체의 경음화율은 평균 73%로서, 전국적으로 볼 때, 비교적 높은 지역에 속한다.

전북에서 ‘ㅅ’ 경음화의 빈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80%의 적용률을 보인 무주이고, 그 다음으로 높은 지역은 장수, 남원, 진안, 임실, 순창 등지로서 70%의 적용률을 보인다. 그런데 이들 지역은 경남의 거창(95%)과 함양

(90%)에 접경하거나 근접하고 있으므로 경남의 서쪽 지역으로부터 전북의 동쪽 지역으로 개신파가 전파되고, 이것이 다시 60%대의 서쪽 지역으로 전파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북의 13개 군 전체의 경음화율은 평균 68%로서, 전국적으로 볼 때, 보통 정도의 지역에 속한다.

전남에서 ‘ㅅ’ 경음화의 빈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80%의 적용률을 보인 광양과 여천인데 이들 지역은 각각 경남의 하동(95%)과 남해(95%)에 접경해 있다. 그러므로 전남의 경우에는 서부 경남으로부터 개신파가 전파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 개신파는 전남의 동북 지역(70%대)을 거쳐 서남 지역(60%대-50%대)으로 확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남의 22개 군 전체의 적용률은 평균 70%로서, 전국적으로 볼 때, 보통 정도의 지역에 속한다.

경북에서 ‘ㅅ’ 경음화의 빈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64%의 적용률을 보인 금릉인데, 이 지역은 경남의 거창(95%)으로부터 개신파가 전파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안동은 57%의 적용률을 보여 금릉 다음으로 그것이 높은데, 접경지인 봉화(50%), 영풍(30%), 예천(45%), 의성(45%), 청송(25%), 영양(35%) 등지가 안동보다 적용률이 낮은 점으로 볼 때 안동에서 이들 지역으로 개신파가 전파되어 갔을 것으로 추정된다.<sup>10)</sup> 여타 지역은 7%에서 36%까지의 경음화율을 보이고, 경산의 경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음화율이 0%이다. 경북의 23개 군(울릉군 제외) 전체의 경음화율은 평균 28%로서, 전국적으로 볼 때, 그 적용률이 가장 낮다.

앞의 [표 3]의 설명에서 본 바와 같이 ‘ㅆ’탈락규칙(‘ㅆ>ㅅ’)이 100% 적용된 지역에는 경북의 8개 군(청송, 영덕, 영일, 경산, 영천, 고령, 달성, 월성)과 경남의 1개 군(양산)이 있다. 여기서 ‘ㅆ’가 100% 탈락되었다는 것은

10) 안동에서 경음화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여기서는 이 지역이 반촌이라는 특수성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해 둔다.

이들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복자음의 경음화(‘ㅃ>ㅍ’)에 의한 음소 ‘ㅍ’의 생성이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표 5]에서는 평음 ‘ㅍ’가 전혀 경음화되지 않은 지역에 경북의 경산 한 지역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전후자가 보여 주는 비경음화 지역의 차이는 복자음의 경음화에 의한 경음 음소의 생성 없이 자생적 변화에 의한 경음 음소의 생성이 가능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남에서 ‘ㅍ’ 경음화의 빈도가 높은 지역은 거창, 하동, 진양, 함안, 사천, 고성, 남해, 통영, 거제 등지로써 이들 지역은 95%의 적용률을 보인다. 그리고 함양, 산청, 의령, 김해 등지는 90%의 적용률을 보여 전체 19개 군 가운데 13개 군이 90%대의 높은 적용률을 보인다. 여타 지역(창녕, 의창, 합천, 울주, 양산, 밀양)은 85%에서 40%에 걸쳐 있는데 합천을 제외하면 대체로 동부 경남에 속하는 군들이다. 이러한 분포 경향은 경남 지역에서는 서남부 지역에서 동북부 지역으로 개신파가 전파되었을 것이란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경남의 19개 군 전체의 경음화율은 평균 85%로서, 전국적으로 볼 때, 그 적용률이 가장 높다.

제주도에서는 평균 74%의 경음화율을 보이는데, 전국적으로 볼 때, 그 비율은 대체로 높은 편에 속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각 지역별 ‘ㅍ’ 경음화율과 [지도 3]을 종합해 보면, 도별로는 경남이 그 비율이 가장 높고, 군별로도 경남의 거창, 하동, 진양, 함안, 사천, 고성, 남해, 통영, 거제 등지가 그 비율(95%)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포 경향은 ‘ㅍ’ 경음화의 개신파가 바로 이들 지역(경남 서남부 지역)이었으리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이 개신파의 주류는 전라도를 거쳐 충청도 지역으로 전파되고 이것은 다시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으로 전파되어 갔으나 경남의 동북부와 경북 지역으로 전파된 개신파는 그 세력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폐쇄음(‘ㄱ, ㄷ, ㄴ, ㅈ’)의 경음화는 영남 전역에서 그 적용률이 높다. 이

에 비해 마찰음(ʃ)의 경음화는 서부 경남에서는 적용률이 높으나 동부 경남과 경북 지역에서는 그 적용률이 낮음을 앞에서 보았다. 동일한 경음화인데도 폐쇄음의 경음화와 마찰음의 그것이 적용률에서 이렇게 차이를 보인 것은 두 개신파의 개신지가 서로 다르고, 또 개신파의 주류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sup>11)</sup>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앞에서 얻어진 결론이 폐쇄음(ㄱ, ㄷ, ㅂ, ㅈ)의 경음화에서는 이들을 묶어서 한 덩어리로 취급하고 ‘ㅅ’는 단독으로 취급하여 통계를 내었기 때문에 얻어진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다음에서는 ‘ㄱ, ㄷ, ㅂ, ㅈ’의 각각을 달리 취급하여 그 개신지를 추정해 보기로 한다.

먼저 앞의 통계 처리에서 다루었던 55개의 어사들 중 ‘ㄱ’와 관련된 어사는 34개, ㄷ는 10개, ㅂ는 7개, ㅈ는 4개인데, 이들 각각이 전국 138개 군(울릉군 제외)에서 실현된 경음화의 비율을 보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지역별로 본 경음화 빈도(% , 개별 폐쇄음)

군명	ㄱ	ㄷ	ㅂ	ㅈ	군명	ㄱ	ㄷ	ㅂ	ㅈ
101연천	24	30	14	0	511고창	44	50	67	25
102파주	18	20	14	0	512순창	38	50	67	25
103포천	21	20	29	0	513남원	52	50	50	0
104강화	19	20	14	0	601영광	43	60	80	0
105김포	21	20	29	0	602장성	39	50	60	0
106고양	16	20	29	0	603담양	41	70	43	0
107양주	15	30	14	0	604곡성	42	70	60	0
108남양	15	30	14	0	605구례	53	80	80	0
109가평	21	30	29	0	606함평	45	60	67	0

11) 위진(2008:131-132)에서는 어두경음화의 개신지를 전남을 중심으로 한 남부방언으로 보았다. 그러나 다른 지역 방언들에 대한 검토의 여지를 남겨 두었다.

110웅진	23	30	14	0	607광산	43	50	67	0
111시흥	24	20	14	0	608신안	46	50	60	0
112광주	24	30	14	0	609무안	42	40	80	0
113양평	21	20	29	0	610나주	48	70	67	0
114화성	21	20	14	0	611화순	39	50	40	0
115용인	29	30	14	0	612승주	56	80	60	50
116이천	29	40	29	0	613광양	61	80	60	0
117여주	29	20	29	0	614영암	45	60	80	0
118평택	18	30	14	0	615진도	34	40	80	0
119안성	32	30	29	0	616해남	38	50	67	0
201철원	19	20	17	0	617강진	35	70	60	25
202화천	21	30	14	0	618장흥	45	60	60	0
203양구	23	33	14	0	619보성	44	50	75	0
204인제	28	44	14	0	620고흥	48	80	60	25
205고성	31	50	29	0	621여천	56	80	60	0
206춘성	27	20	14	0	622완도	31	70	60	0
207홍천	27	33	14	0	701영풍	68	78	60	25
208양양	25	22	14	0	702봉화	59	80	50	25
209횡성	28	20	14	0	703울진	69	80	57	33
210평창	47	67	33	25	704문경	65	70	60	0
211명주	42	67	43	0	705예천	71	70	71	33
212원성	34	50	17	0	706안동	72	67	33	0
213영월	53	44	43	25	707영양	61	78	83	33
214정선	56	78	29	0	708상주	69	70	50	25
215삼척	47	89	29	0	709의성	64	80	83	0
301진천	32	30	14	0	710청송	69	90	83	0
302음성	32	30	29	0	711영덕	59	70	60	33
303증원	35	30	14	0	712금릉	67	80	33	0
304제원	38	20	14	0	713선산	69	90	50	33
305단양	44	70	43	0	714군위	65	70	67	0
306청원	32	30	14	0	715영일	71	100	60	0
307괴산	44	40	14	0	716성주	63	80	67	0
308보은	50	50	14	0	717철곡	66	90	50	25
309옥천	47	50	14	25	718경산	70	100	83	0

310영동	53	60	43	25	719영천	74	90	67	25
401서산	21	30	14	0	720고령	71	90	50	0
402당진	27	30	14	0	721달성	74	80	86	25
403아산	26	40	14	0	722청도	76	70	71	50
404천원	24	40	14	0	723월성	79	90	86	50
405예산	24	50	14	0	801거창	69	80	67	0
406홍성	21	30	14	0	802합천	73	90	83	0
407청양	30	40	14	25	803창녕	71	90	83	0
408공주	26	40	14	0	804밀양	75	90	83	0
409연기	29	40	14	0	805울주	72	90	67	0
410보령	18	30	17	0	806함양	65	80	71	0
411부여	27	40	29	0	807산청	52	80	60	0
412서천	21	30	14	0	808의령	65	80	67	0
413논산	24	30	14	0	809하동	50	70	40	0
414대덕	35	40	14	25	810진양	70	80	60	0
415금산	30	30	50	0	811함안	63	70	57	0
501옥구	24	30	29	0	812의창	74	80	67	0
502익산	27	30	17	25	813김해	65	80	67	0
503완주	24	20	33	0	814양산	77	100	83	0
504진안	42	40	57	0	815사천	59	90	60	0
505무주	52	60	43	0	816고성	61	90	80	0
506김제	36	40	67	25	817남해	63	67	60	0
507부안	36	40	67	0	818통영	60	80	50	0
508정읍	34	60	67	0	819거제	59	78	50	0
509임실	42	50	83	0	901북제	19	50	75	0
510장수	42	60	83	25	902남제	27	63	50	0

[표 6]에 의거하여 ‘ㄱ, ㄷ, ㅂ, ㅈ’ 각각의 경음화 개신지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ㄱ’의 경우에는 최고의 적용률인 70%대의 적용률을 지닌 지역이 경북의 예천, 영일, 영천, 고령, 안동, 달성, 청도, 경산, 월성, 경남의 합천, 창녕, 밀양, 울주, 진양, 의창, 양산 등지이고, ‘ㄷ’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적용률인 100%-90%의 적용률을 지닌 지역이 경북의 영일, 경산, 청송, 선산, 칠곡, 영천, 고령, 월성, 경남의 양산, 합천, 창녕, 밀양, 울주, 사천, 고성 등지이다. 그리고 ‘ㅁ’의 경우에는 최고의 적용률인 80%대의 적용률을 지닌 지역이 전북의 임실, 장수, 전남의 영광, 구례, 무안, 영암, 진도, 경북의 영양, 의성, 청송, 경산, 달성, 월성, 고성, 경남의 합천, 창녕, 밀양, 양산 등지이고, ‘ㅂ’의 경우에는 최고의 적용률인 50%대의 적용률을 지닌 지역이 전남의 승주, 경북의 청도, 월성 등지이다.

그런데 이들 지역 가운데서 ‘ㄱ, ㄷ, ㅁ, ㅂ’의 네 경우 모두에 포함되는 지역은 경북의 월성이며 ‘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률도 최고의 수치를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폐쇄음(‘ㄱ, ㄷ, ㅁ, ㅂ’)의 경음화가 다 같이 월성 지역을 개신지로 하여 발달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게 하는데, 이것은 앞의 [표 4]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추정한 개신지가 더욱 압축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폐쇄음 전체를 통계 처리하여 얻어진 개신지와 개별 폐쇄음을 통계 처리하여 얻어진 개신지는 동일하다고 보아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세나 근대 국어에서 어두 복자음을 가졌던 어사 57개와 어두 단자음(평음)을 가졌던 어사 69개의 현대국어 방언형을 『한국방언자료집』에서 찾아 이들의 경음화 여부와 거기에 적용된 규칙(변화)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밝혀진 각각의 음운규칙(변화)이 각 지역(군 단위)에서 어느 정도로 적용되었는지를 통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각 규칙의 개신지와 그 전개 양상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밝혀진 중요한 사항을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1) 어두 복자음의 경음화율이 어두 단자음의 경음화율보다 높는데, 이것은 전자의 경음화가 후자의 그것보다 일찍 발달한 것임과 동시에 국어 음운사에서 경음이 음운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 전자의 경음화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의미한다.

2) 어두 복자음의 역사적 변화 과정에 적용된 음운규칙에는 복자음 경음화규칙과 ‘ㄷ’탈락규칙(‘ㄷ>ㄴ’)이 있었다. 전자는 전국적으로 그 적용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개신지가 어디인지를 추정하기 어렵다. 후자의 개신지는 경북의 동남부 지역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 지역에서 발생한 개신파는 한편으로는 경북의 서북부 지역으로 전파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약하나마 해로를 통해 전남의 서부 지역으로 전파되어 간 것으로 추정된다.

3) 어두 단자음의 경음화는 폐쇄음(‘ㄱ, ㄷ, ㅂ, ㅈ’)의 경우와 마찰음(‘ㅅ’)의 경우로 구별된다. 전자의 개신지는 경북의 동남부 지역과 경남의 동북부 지역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개신파는 경남북 내부에서의 확산과 동시에 인접 도로 전파되어 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후자의 개신지는 경남의 서남부 지역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개신파의 주류는 전라도를 거쳐 충청도 지역으로 전파되고 그 아류는 경남의 동북부와 경북 지역으로 전파되어 갔으나 그 세력은 미약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4) 경북 경산 지역에서 ‘ㅅ’이 음소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어두 복자음(‘ㄷ’)이나 어두 단자음(‘ㅅ’)의 어느 것도 이 지역에서 경음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권재선(1979), 『병서연구』, 수도문화사.
- 김덕호(1993), “어두 ㅅ 비경음 실현 지역의 지리언어학적 고찰”, 『어문론총』(경북어 문학회) 27, pp.69-95.
- 김무림(1997), “경음의 음운사”, 『국어국문학』 119, pp.29-48.
- 김민수(1955), “합용병서 음가론”, 『국어국문학』 13, pp.10-44.
- 김형규(1974), 『한국방언연구』, 서울대 출판부.
- 김형규(1978), 『중보 국어사연구』, 일조각.
- 도수희(1971), “각자병서 연구”, 『한글학회 50돌 기념논문집』, pp.69-104.
- 박병채(1971), 『고대국어의 연구』, 고대 출판부.
- 박병채(1989), 『국어발달사』, 세영사.
- 박창원(1991), “국어 자음군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 백두현(1992), 『영남문헌어의 음운사 연구』, 태학사.
- 오정란(1988), 『경음의 국어사적 연구』, 한신문화사.
- 오종갑(1996), “국어 어두 합용병서 표기의 변천”, 『국어국문학』 117, pp.1-31.
- 우민섭(1988), “15세기 국어의 초성병서 연구”, 중앙대 박사학위 논문.
- 위 진(2008), “전남방언에 나타난 어두경음화”, 『한국언어문학』 65, pp.111-135.
- 이기문(1972), 『국어음운사연구』, 한국문화연구소.
- 이남덕(1968), “15세기 국어의 된소리고”, 『이승녕박사 송수기념논총』, pp.403-417.
- 이동림(1964), “語頭語末 複子音 形成 及 促音 『叱』과 ㄱ, ㅅ(ㅆ), ㅂ 關係”, 『국어국문학논집』(동국대) 5, pp.3-20.
- 이승녕(1982), 『중세국어문법』, 을유문화사.
- 최학근(1982), 『한국방언학』, 태학사.
- 최현배(1940), 『한글갈』, 정음사.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7-1995), 『한국방언자료집』( I ~ IX).
- 허 웅(1982), 『개고 신판 국어음운학』, 정음사.

<b>Abstract</b>
-----------------

## The Glottalization of Initial Consonants reflected in Korean Dialects

Oh, Jong-Gap

This study was designed to find ①what phonological rules had existed by looking into the historical changes of initial consonant clusters/initial lenis consonants, and ②what the spread course of each rule had been by comparing its application percentages by province groups. As a result,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reached.

1. Four phonological rules — the glottalization of initial consonant clusters rule, p-deletion rule, glottalization of plosives rule, glottalization of fortis rule — had been applied to the historical changes of initial consonants.

2. It was thought that the birthplaces of the p-deletion rule, glottalization of plosives rule, glottalization of fortis rule were East-South Kyeongbuk Province, East-North Kyeongnam/East-South Kyeongbuk Province and West-South Kyeongnam Province respectively. But it could not be thought where the birthplace of the glottalization of initial consonant clusters rule was because its application percentages was very high in all provinces of South Korea.

3. The p-deletion rule had spread from East-South Kyeongbuk Province into West-North Kyeongbuk Province principally and into West-Jeonnang Province by sea secondary.

4. The glottalization of plosives rule had spread from East-North Kyeongnam/East-South Kyeongbuk Province into all provinces of South Korea.

5. The glottalization of fortis rule had spread from West-South Kyeongnam Province into Jeolla/Chungcheong Province principally and into East-North

Kyeongnam/Kyeongbuk Province secondary.

6. There was not phoneme /s'/ in phonemic system of Kyeongsan dialect because both glottalization of initial consonant clusters(/ps/) rule and glottalization of fortis(/s/) rule had not existed in this dialect.

Key-words : glottalization of initial consonant clusters, glottalization of initial lenis consonants, p-deletion rule, glottalization of plosives, glottalization of fortis, birthplace of glottalization rule.

오종갑

소속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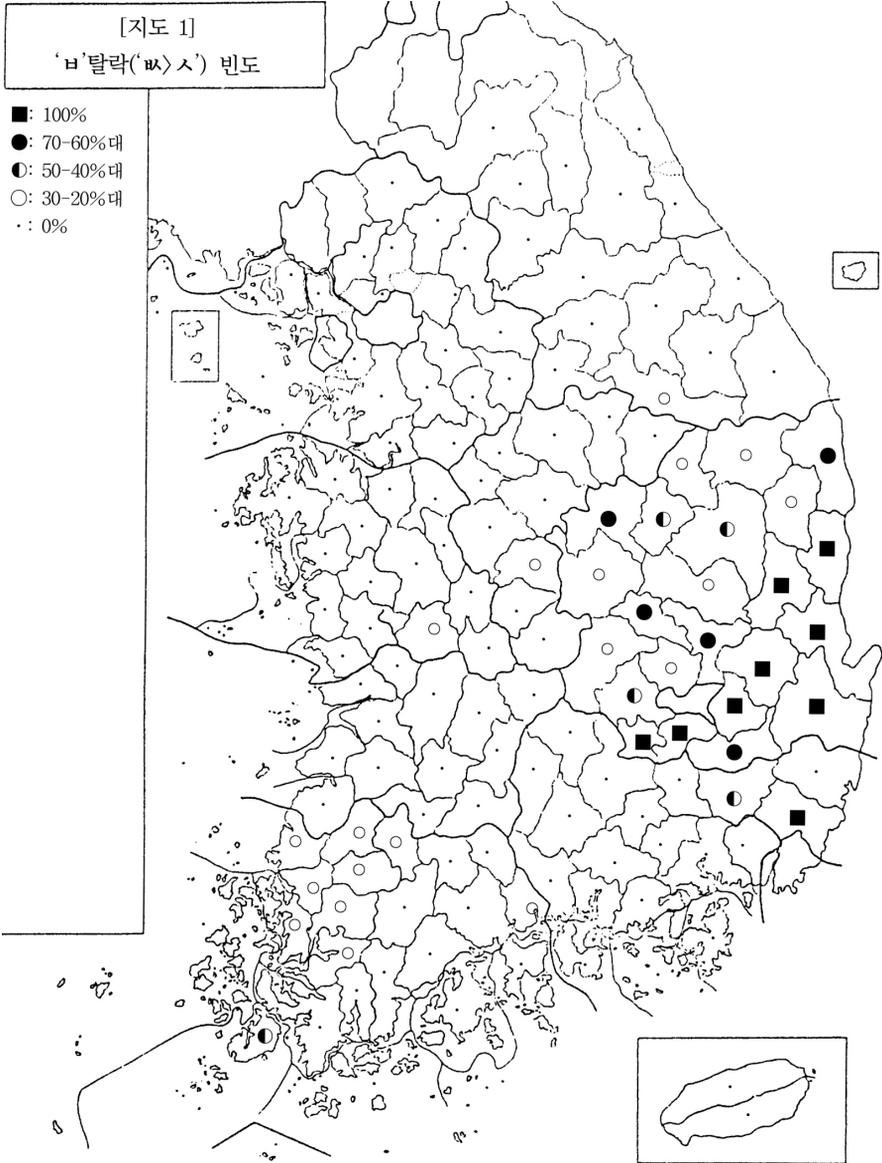
주소 : (712-775) 경북 경산시 중산동 태왕한라타운 110동 1008호

전화번호 : 053-810-2112(연구실), 010-2733-0836

전자우편 : ohjk@y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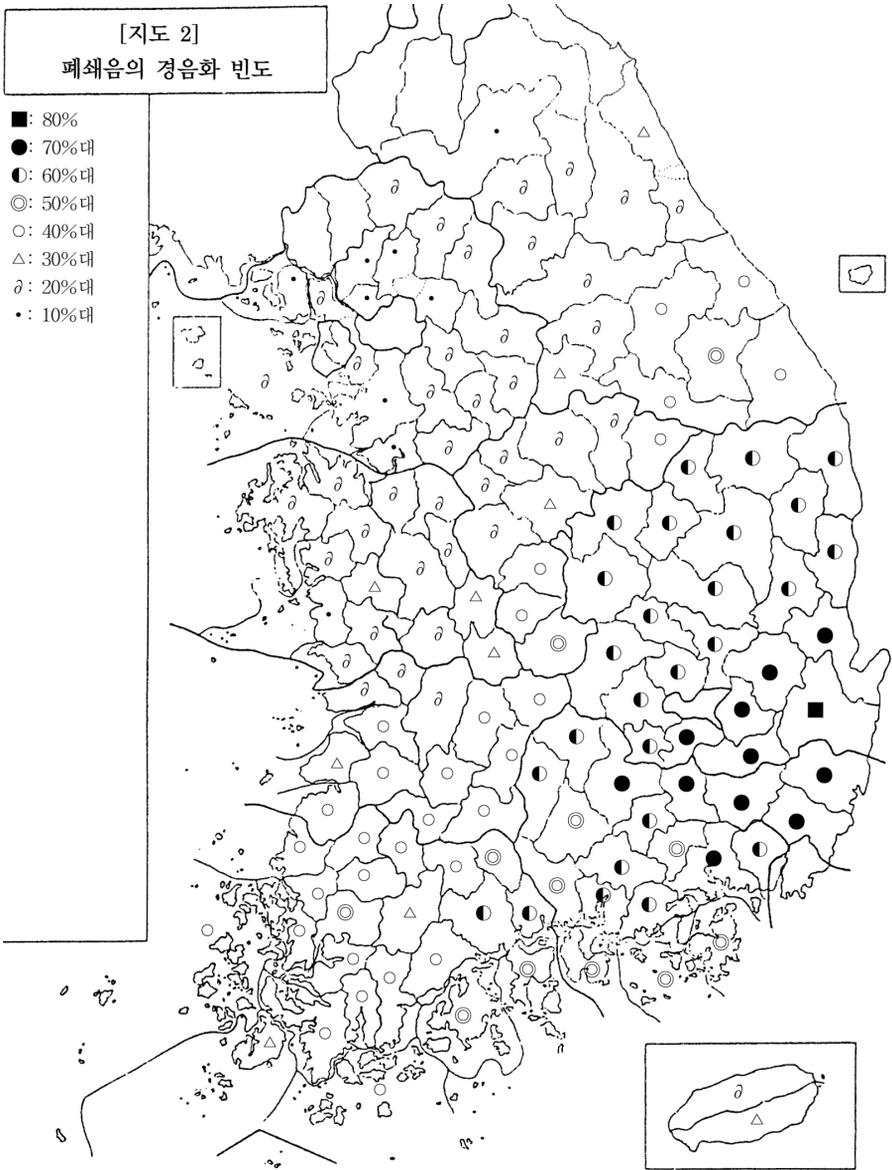
이 논문은 2011년 4월 26일 투고되어  
2011년 6월 7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1년 6월 15일 게재 확정됨.

[부록]



[지도 2]  
폐쇄음의 경음화 빈도

- : 80%
- : 70%대
- ◐: 60%대
- ◎: 50%대
- : 40%대
- △: 30%대
- ∂: 20%대
- : 10%대



[지도 3]  
'ㅅ'의 경음화 빈도

- : 90%대
- : 80%대
- ◐: 70%대
- ◎: 60%대
- ⊙: 50%대
- : 40%대
- △: 30%대
- ∧: 20%대
- ∂: 10%대
- ÷: 9% 이하
- : 0%

